72 •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섬유화증

성별 남성 **나이** 62세 **직종** 자동차도장작업 **직업관련성**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□사업장에서 1974년 10월 입사부터 정년퇴직한 2007년 12월까지 33년 3개월을 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. 퇴임 전 3~4년 전부터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꼈고 2003년 11월 병원에서 골수 섬유화증을 진단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이 작업하였던 도장부서의 이전환경은 환기장치가 고가 자동차의 작업을 하는 곳에만 환기장치가 있었으며 환기 장치가 없는 곳은 대형선풍기를 두었다. 분진 마스크를 지급받았었으나 성능이 부족하여 가아제(Gauze)를 덧대고 작업을 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퇴임 3~4년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꼈다. 2003년 발치를 하고 나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골수 섬유화증을 진단 받았다. 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들었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계속하였고, 2007년 정년까지 근무를 하였다. 퇴직 후 기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. 2010년 3월 기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기 시작하였고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하여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.

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□사업장에서 33년 3개월 동안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도장작업에서 노출되는 벤젠은 명백한 발암가능 물질이고, 1990년대 이전 상/중도도장작업에서 벤젠이 측정된 기록이 있으며, 골수성유화증은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WHO분류에서 조혈림프기관종양 중 골수성 신생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